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

UNCED와 21세기 환경질서



한국환경과학연구협의회(회장·노재석)는 동서냉전체제 붕괴 이후 지구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는 지구환경문제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하고자 지난 9월 2~5일 4일간 호텔 롯데월드 3층에서 「유엔환경개발회의와 21세기 환경질서에 대한 조망」을 주제로 '92 서울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한국을 비롯 러시아, 중국, 몽고, 일본 등 동북아 5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동심포지움에서는 국제환경협약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 및 우리나라의 대응책 등을 중점적으로 모색하였다.

(사)한국폐기물학회

폐기물자원화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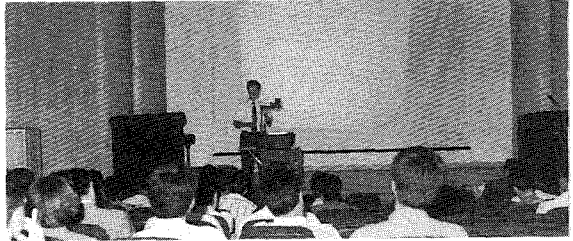


(사)한국폐기물학회(회장·김수생)는 폐기물의 자원화에 대한 기술개발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조선일보와 한국과학재단 및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의 후원으로 지난 9월 16-17 일간 한국종합전시관 대회의실에서 「폐기물 자원화기술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동세미나는 한국과학연구소 응용화학연구사업단 오세균단장의 「고지재생 기술현황」의 10여편의 폐기물관련 논문이 발표되었다.

(사)한국산업미생물학회

미생물제재특성 워크샵



(사)한국미생물학회(회장·홍순덕)환경미생물분과위원회(위원장·이은호)는 지난 9월 5일 두산연수원 대강당에서 폐수처리용 미생물제재의 특성과 효능에 관한 워크샵을 개최하였다.

폐수처리에 있어서 분해가 어려운 폐수의 분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첨가제의 사용 방법과 인식을 전환, 미생물제재의 유용성을 밝혀 발전적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개최된 동행사에는 서울산업대 이수교수 등 관·산·연대표 다수의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사)환경보전협회

제2회 환경논문 경시대회



(사)환경보전협회(회장·정수창)는 지난 9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 12층에서 제2회 전국 학생 논문 및 수필경시대회 시상식을 가졌다.

지난 9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논문 11편, 수필 35편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발표한 이날 논문부분 영예의 최우수상에는 인제대 이숙향양이, 우수상에는 성심여대 강정아양, 서울대대학원 김훈기군 등이 당선, 수필 부분에는 서울서일중 정여주·문일교교 하도욱 등이 당선되었다.

한국종합전시장

제2회 한국과학기기전



한국종합전시장은 지난 9월 18~21일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제2회 한국국제과학기기전 및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6개국 50여개업체가 참가한 동전시회에는 환경기기, 분석기기 및 최첨단분석기기 15종이 전시되어 참관객이 직접 기기를 작동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한편 같은 기간에 대한화학회 주관의 공업화학분석세미나와 한국과학교육학회 주관의 '92과학교육분야 학술회의도 함께 실시되었다.

서울YMCA의 7개단체

쓰레기줄이기운동 토론회



서울 YMCA, YWCA, 공해추방운동연합 등 8개 단체는 지난 9월 21일 서울 YWCA 대강당에서 시민 3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의 의의와 전략」을 주제로 한 대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민간단체를 비롯 사회각계와 언론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쓰레기 줄이기에 대한 시민의식이 크게 향상된 가운데 개최된 동행사에는 서울대 권태준교수의 「쓰레기 줄이기 시민운동의 의의와 전략」에 관한 주제강연에 이어 정부의 대책 및 시민운동의 과제와 실천방안 등이 심도깊게 다루어졌다.

환경관리인. 1992.10

아주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

특정폐기물 안전관리교육

아주대학교 환경공학연구소(소장·조순행)는 지난 9월 18일 아주대학교 본관 대단위강의실에서 「특정폐기물의 안전 및 관리를 위한 교육」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유해폐기물의 매립과 소규모 폐수 발생업소의 폐수 및 폐기물관리를 중점적으로 다룬 동심포지엄에는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 김종찬선생의 「소규모 폐수발생업소의 폐수처리 방안」, 우수종합환경(주) 김윤식선생의 「도금폐수의 특성과 처리 대책」 등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공해추방운동연합

환경학교 및 녹색상품 전시

공해추방운동연합(의장·최열)은 지난 9월 18일~10월 21일 간 매 주수·금요일 양일간 종로성당 3층 대강당에서 제12기 생존과 평화를 위한 환경학교를 개설한다.

한편 동연합은 지난 9월 3~4양일간 여의도 윤중국교 대강당에서 환경을 되살리기 위한 「녹색 상품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동행사는 「쓰레기 과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기업상품의 포장계획 변경 요구」를 주제로 하여 과대포장의 문제와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쓰레기를 분리할 수 있는 것과 분리해도 재활용되지 못하는 제품 등을 적극 홍보하기 위하여 주부대상으로 치루어졌다.

대한 YMCA연맹

환경지도자 교육

대한 YMCA연맹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는 각 사회단체 지도자들에게 환경운동의 올바른 지침을 제공해 주하고자 지난 9월 27일~30일 의정부 소재 다락원에서 환경지도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동연맹은 2기 10월 27일~30일, 3기 11월 24일~27일 교육을 계속하여 동장소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본연합회 고문 3인 정년퇴임

학계에 재직하면서 사회전반적인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의 개선을 위해 부단히 연구하던 교수 3인(본연합회 고문)이 지난 9월에 정년 퇴임식을 가졌다.

먼저 지난 9월 5일 인하대학교 환경공학과 정재기 교수가 라마다르네상스호텔 다이아몬드 볼룸에서 정년퇴임식과 함께 그간 학계에 재직하면서 연구한 논문을 모은 정년기념 논문집을 봉정받았다.



▲ 정재기교수 정년퇴임식

지난 9월 17일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노용희 교수가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정년퇴임 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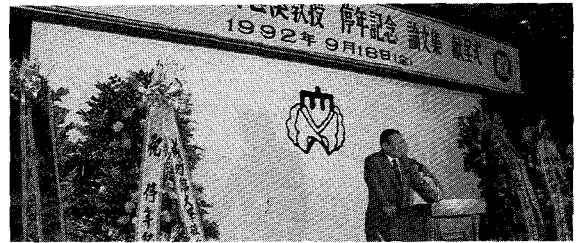
「종합과학 연구의 경험과 성찰」에 관한 주제강연을 한 뒤 노교수는 맥아더 장군의 말을 인용, 「노교수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고 말하면서 앞으로 계속하여 연구활동을 할 것을 다짐하며 5년후에 새



▲ 노용희교수 정년퇴임식

로운 연구논문집을 발표하겠다고 기업을 토하기도 하였다.

또한 지난 9월 18일은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교수이자, 수질보전학회 회장인 홍사욱 박사가 동료 및 친지 2백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강남소재 중국성 연회장에서 정년기념 논문집 봉정식과 함께 정년퇴임식을 가졌다.



▲ 홍사욱교수 정년퇴임식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환경과 폐기물관리 심포지엄

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소장·정용)가 주최하고 환경보전범국민운동추진협의회(회장·김수학)가 주관한 환경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 지난 9월 21-22양일간 서울 힐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지역사회이익과 자원으로서의 쓰레기 매립장」을 주제로 개최된 동 심포지움에는 환경처 폐기물관리국 김인환국장의 「한국의 폐기물 관리정책」, George Fle-

ming 스코틀랜드 스트라스클라이드대 교수의 「쓰레기 매립지는 왜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가?」 등 다수의 주제논문이 발표되었다.

사무실 이전안내

(주)한농(대표·신준식)

주 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6-13

TEL: 547-8100 FAX: 511-2622

(사)광록회(회장·이을호)

주 소: 광주시 서구 월산5동 1051-10

TEL: (062)364-4434(FAX겸용)